

기아차 광주공장 셧다운…통근·부품차량 출입 없이 적막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서 부품 공급 차질

하루 평균 2100대 생산차질…오늘 까지 휴업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폭풍이 결국 국내 자동차업계를 멈춰 세웠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차질로 기아차 광주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10일 오전 7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다 인적도 없어 광주2공장 앞 일대는 적막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1직 근무자들을 실은 수십대의 통근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야 했지만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통근차량들은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광주2공장의 주 출입구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시간이면 꼬리를 물고 들어서는 부품 공급 차량들 역시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인근에서는 만난 한 시민은 “제가 평소 출근하는 이 시간이면 기아차 근로자들을 실은 통근차량과 부품 공급차량들이 줄지어 들

어서면서 북적였는데 오늘은 적막하네요”라고 말했다.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의 휴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이 가동 중단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내 들어가는 전선 끓치인 ‘와이어링 하니스’의 국내 재고가 바닥난데 따른 조치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수급 차질로 기아차 광주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10일 오전 7시, 광주2공장의 주요 부품 차량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등을 양산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미 지난 4일부터 봉고트럭 감산을 진행해 왔으며,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휴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가동중단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하루 생산량인 평균 2100대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2,3공장과 버스 생산라인은

휴업에 들어갔지만 광주공장의 군수리인은 이를 모두 정상 가동한다.

기아차는 공장별 도입부품 재고상황을 일별 점검해 추후 생산 운영에 대응할 예정이며 11일 이후 생산 재개 여부는 10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부품 수급 상

황을 봐가면서 생산재개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생산 재개를 위한 오늘(10일) 노사의 협의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이날부터 이틀간 가동중단에 들어가면 250여곳에 이르는 1,2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수 백 여개 종소 협력업체

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칫 기아차의 가동중단이 길어질 경우 이를 중소업체의 연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10일부터 중국의 연휴가 끝나며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가동중단 사태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전망지만 중국내 생산이 정상궤도까지 오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계의 전망이다.

앞서 광주지역 3대 제조사업장 가운데 한 곳인 금호타이어도 주말인 8일과 9일 이틀 동안 광주공장, 곡성공장, 평택공장 등 국내 3개 공장을 대상으로 휴업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중국에서 공급되는 부품 차질로 감산에 들어간 완성차 업체의 생산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씩 뜯어쓰는 수세미 10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한 장씩 뜯어쓰는 ‘시그니처 수세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적은 양의 세제로도 뛰어난 세척력을 자랑하고 욕실이나 가스 레인지 등 각 종 생활 공간을 청소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1개 당 3990원으로 전국 홈플러스 매장과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며 홈플러스 스페셜과 홈플러스 더 클럽에서는 3개 9900원에 판매한다.

17·19일 마스크·손소독제 게릴라 방송…사재기 방지 조치

“마스크 가격 안정화 위해 1000원대 판매…노마진”

정부가 공영쇼핑을 통해 오는 17일과 19일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공정성 확립과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노마진’·‘게릴라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15만개를 1000원대에 판매한다.

마스크·손소독제 구매 희망 소비자들은 17일과 19일 공영쇼핑을 시청하다 간접 방송이 편성되면 방송 시간 중 전화로 구매할 수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100만개·손소독제 14만개를 확보해 오는 17일부터 공영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 1차 판매 방송 일정은 17일 ‘손소독제 2만세트’, 19일 ‘마스크 15만개’이다. 공영쇼핑은 한정된 준비 물량으로 인해 ‘소비자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게릴라 방송을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유통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게릴라 방송으로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릴라 방송이기 때문에 별도 편성시간이 없고 미리 주문도 안 되고, 온라인 판매도 막았다”며 “오로지 방송만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저희 시청자들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최근 마스크 구매 열풍 속 취약계층(사각지대)”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가격 안정화를 비롯해 모든 연령대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쇼핑은 현재 3000원대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마스크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1000원대 수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전혀 없는 ‘노마진’(판매수수료 제로)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현재 마스크 가격이 (1개당) 3000원이고, 도매가는 약 1500원정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착한 업체들을 수소문해 1000원대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판매할 경우 민간 흡수력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적인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조업중단이 지속되는 데 대비한) 2단계 대응은 당장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춘절 연휴에 따른 중국 공장 조업중단 기간’을 기준으로 9일 이전까지 1단

계 대응을, 이보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2단계 대응을 준비해왔다. 조업중단이 길어지면 수입기업의 자재 수급과 수출기업의 자금회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그동안 1단계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조업재개를 위해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준비한 마스크 1만개는 지난 7일 중국 상해공항에서 긴급구호물자 통관심사를 완료해 신동성 내 칭다오 등 3곳의 한국 중소기업으로 배송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중국 신동성에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조업 재개로 이어졌다”며 “현대차 측에서도 조업 재개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기부가 제공한 마스크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도 했다.

마스크 원부자재 수급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주 중·중기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밝히는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곳에 피해가 더 크다는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춘절 연휴에 따른 중국 공장 조업중단 기간’을 기준으로 9일 이전까지 1단

현대차, ‘코나EV’ 세계전기차 6위 진입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 ‘코나EV’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 판매 순위 6위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TOP 10’에 진입했다. 기아자동차도 ‘니로 EV’ 판매 호조로 14위로 올라섰다.

친환경·모빌리티’를 앞세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의지가 결실을 맺고 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76개국에 판매된 전기차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브랜드 순위에서 현대차가 전년대비 11계단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4만2000대에서 지난해 6만4000대를 기록해 전년보다 54.3% 급증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8%로 전년대비 1%p 상승했다.

SNE리서치는 현대차가 유럽을 중심으로 코나 EV 판매가 2.7배 급증하는 등 주요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다고 분석했다.

SNE리서치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니로 EV’ 판매량이 30.4% 증가하면서 전년 21위에서 14위로 7계단 올라섰다고 밝혔다.

SEN리서치 측은 “현대와 기아는 앞으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코나 EV와 니로 EV 등의 판매가 더욱 늘어나면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부문을 중심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래차 시장에 선점해 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5년 동안 예정된 투자금액만 100조원에 이른다.

정 수석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전미 주지사협회 리센셜에 참석해 수소전기차 넥쏘의 공기정화 기능을 시연하며 넥쏘에 탑재된 세계적 기술과 수소 에너지 기반의 미래 수소사회 비전을 소개했다.

전미주지사협회 회의는 미국 50개 주와 5개 자치령 주지사들이 매년 두 차례 모여 주 정부 간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자리다.

6주만에 찾은 잠자는 금융자산 1.4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단일 캠페인 사상 최대

#7개월 된 아기를 둔 육아유저 A씨(32)는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계좌 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대학시설 생활비 예금 계좌에 있던 47만 원을 찾아 육아비용에 보탰다.

#해외에 거주하는 은퇴생활자 B씨(80)는 허면보험금을 확인한 뒤 국내 거주 친척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했다. B씨는 친척을 통해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80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사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금융소비자 162만명이 ‘잠든 자산’ 약 1조4000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허면보험금 재산과 장기미거래금융재산 1조2207억원과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장기미거래금융재산 1조1746억원이었다.

이는 최근 4년(2015년 6월~2019년 6월 말)간 주인을 찾아간 허면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 금융소비자가 기존 허면금융재산과 장기미거래금융재산 뿐 아니라 카드포인트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사용되지 않고 남은 카드포인트는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금감원은 고령층이 더 많은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창구직원이나 보험 설계사를 통한 안내 등 캠페인을 다양화해 계획이다.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찾기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내 계좌 한눈에’,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1

중국~제주 텁승객 하루 46명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뒤 중국 제주행 항공편 텁승객이 95% 급감했다.

이에 중국 본토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은 1개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다.

10일 한국항공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흥콩을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한 항공편 텁승객 수는 총 3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중국인이 제주에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후 중국~제주 항공편에 하루평균 46명만이 텁승객 수는 2713명이다.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 방지 를 위해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고 중국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텁승객 수가 95%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제주 노선 텁승객 수를 일별로 보면 4일 78명, 5일 41명, 6일

뉴스1